

민은기의 클래식 비망록

# 고독했던 '3중의 이방인' 말러, 교향곡으로 세상을 품다

〈유대인·오스트리아인·보헤미아인〉

민은기  
서울대 음악학과 교수



보헤미아 태생 작곡가·지휘자  
편견·차별 뚫고 지휘자로 우뚝 서  
실수 단원에겐 버럭, 원성 사기도  
첫 교향곡 '거인' 초연 땀 객석 싸늘  
포기 않고 난해한 10개 교향곡 남겨  
개인적 감정 강렬하게 투영된 선율  
사후 열광적인 팬 '말러리언' 낚아

생전에 철저히 외면받다가 사후에 그 진가를 인정받는 예술가들이 적지 않다. 작품 한 개 값이 무려 1000억 원이 넘는다는 반 고흐조차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평생을 고독과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았던가. 본래 예술이란 창조적인 일이어서 기존의 관습과 전통을 깨기 일쑤여서 그렇다. 시대를 앞서가는 작품일수록 그에 비례해서 대중들이 느끼는 생경함과 거부감은 커지기 마련이다. 때로는 예술가의 성격이나 기질, 출신 등이 외면을 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생전에는 작품과 그것을 만든 사람을 분리해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유대주의 탓 10년 만에 빈 필 사임  
음악사에서는 구스타프 말러가 그랬다. 말러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변방이었던 보헤미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외곽인 칼리슈트라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은 사는 곳을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차별이 심했던 시절이어서 그는 늘 인종적 편견에 직면해 왔다. 말러가 자신은 "3중의 이방인"이라고 말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유대인이었고,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스트리아인이었으며, 오스트리아인 사이에서는 보헤미아인이었으니까.

이방인이어서 눈치를 보면서 살 수도 있었으련만 그런 타입이 아니었으니 그의 삶이 더욱 힘들 수밖에. 말러는 신경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으며 감정이 오락가락하기 일쑤였다. 작곡가로만 살았다면 그의 괴팍한 성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으나 지휘자로도 활동했기에 그를 매일 대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로부터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완벽주의자였던 말러는 연주자 맘에 들지 않으면 자기 분을 참지 못해 발을 크게 굴렀고 실수를 한 단원에게는 지휘봉으로 거친 지적을 해댔다. 이런 그를 단원들은 '포디움 위의 독재자'라고 불렀다.

성격이 나쁜 실력이라도 좋아야 살아남는 법. 다행히 말러에게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그 덕분에 그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벽을 뚫고 지휘자로 성공한다. 작은 소도시의 부지휘자로 지휘자 경력을 시작한 말러는 합부르크 교향악단을 거쳐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빈 궁정 오페라 극장과 빈 필하모니의 지휘자가 되었다. 말러의 지휘는 음악적으로 해석이 완벽했고 유연한 완급 조절과 격정적인 몸짓으로 청중을 때려눕혔으며 연주가 끝나면 관중의 커다란 환호가 쏟아졌다. 그러나 편견과 차별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반유대주의에 기초한 언론의 모함과 비판이 심해져 결국 그는 10년 만에 빈 필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메트로폴리탄과 뉴욕 필하모니의 지

휘자를 역임했으니 경력상 피해는 심하지 않았으나 이 일은 그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지휘자로서 성공했지만 정작 그가 뜨거운 열정을 품었던 것은 오히려 작곡이었다. 그러나 너무 창의적이어서였을까. 그는 작곡에서는 주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첫 작품부터 그랬다. 빈 대학 시절 말러는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칸타타인 '탄식의 노래'를 쓰고 난 후 비로소 자신이 말러임을 자각했다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빈 음악원의 베토벤 상에 도전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혁신적 시도를 내포한 독창적인 곡이었지만 당시 심사위원들의 눈에는 그저 기괴하고 암울하게 보였을 게 분명하다. 게다가



1 이방인으로 고독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으나 현대인들이 감동하는 불후의 명작을 많이 남긴 구스타프 말러. 2 노골적인 외도로 말러를 괴롭히던 아내 알마 말러. (중앙포토)

아우가 여왕과 결혼할 수 있는 꽃을 먼저 찾아내자 형이 아우를 죽이고 그 꽃을 빼앗는다는 잔혹한 가사 내용 역시 보수적 심사위원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수상에 실패한 말러는 전업 작곡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법벌이를 위해 지휘 활동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작곡을 위한 시간이 더욱 없을 수밖에. 그리고 1884년, 15년 만에 그는 위대한 첫 가곡집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작곡한다. 하지만 수정을 거듭하느라 그는 이 작품을 12년이 지날 때까지 공개적으로 연주하지 않았다. 대신 이때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 작곡한 첫 번째 교향곡 '거인'을 1889년 부다페스트에서 초연한다. 하지만 객석에서는 환호 대신 조소가 터져 나왔다. 평론가의 비판은 더욱 혹독해서 그를 거의 광인으로 취급했다. 그래도 말러는 포기하지 않았고, 1911년 51세의 나이로 사망하기 전까지 모두 10개에 달하는 교향곡을 남겼다. 교향곡 1번의 실패를 의식한 듯, 작곡을 끝내고 오랫동안 고치고 또 고친 후에서야 발표했다. 그 중 2번 '부활'과, 3번, 8번 '천인' 정도만 나쁘지 않은 반응을 얻었다.

말러 교향곡들이 현재 누리는 높은 위상과 비교하면, 당시 청중이나 평론가들이 너무 냉담하거나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을 탓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말러의 교향곡은 연주 시간이 1시간은 기본이고 긴 것은 1시간 40분에 달할 정도로 길어서 청중이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용의 난해함에 있



다. 황홀하고 명상적인 악구가 흐르다가 갑자기 격렬한 감정이 솟구치거나 과격한 음향이 폭발하기도 하니 도통 감정을 잡을 수 없다. 게다가 그의 교향곡은 복잡한 암시로 가득 차 있다. 교향곡 1번을 보면 말러는 3악장에서 누구나 아는 동요를 장송곡처럼 들리게 단조로 패러디한 후 곧 카바레에서나 나올 법한 대중적인 선율을 등장시킨다. 그러다 4악장은 시작하자마자 폭풍처럼 휘몰아치다가 좀 차분

해지는가 싶더니 불길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마치 막연 겁자기 승리의 팡파르를 울리며 마침표를 찍는다. 이 4악장에 그는 '지옥에서 천국으로'라는 표제를 달았다. 이러니 사람들은 말러가 치밀하고 진지한 형식으로 간주되던 교향곡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고 여길 수밖에. 하지만 말러는 교향곡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진지했다. 단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은 말러가 기승전결을 통해 통찰을 이끌어내는 교향곡의 형식과 관행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교향곡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했다는 것. 그런 그에게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는 말러가 안 시벨리우스에게 "교향곡은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고독한 이방인으로서의 고통과 기대가 투영되어서일까. 그에게 있어서 교향곡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세계이다. 선과 악, 고귀한 것과 비천한 것, 고상한 것과 시시한 것을 가리지 않고.

"진지한 교향곡 갖고 장난친다" 오해  
작곡가의 개인적 감정이 가장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투영된 느낌을 주는 것 또한 말러 음악의 매력이다. 비통한 탄식이 작품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죽음을 가깝게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1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그는 자신의 동생 12명 중 9명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살아남은 동생 중 한 명은 그가 35세일 때 권총 자살을 했다. 그런 그에게도 미소짓던 시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02년 말러는 화가의 딸이자 재능있는 작곡가였던 19세 연하의 알마 윈들러와 결혼한다. 그녀는 빈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매력적인 여성이었고 그의 결혼 생활은 두 딸의 출산과 함께 행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년 만에 첫 딸을 디프테리아로 잃었고, 말러 자신은 치명적인 심장 이상 진단을 받는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알마와의 관계에도 위기가 닥쳤다. 천성적으로 어둡고 우울하고 거부감적이며 자기 일에만 빠져 사는 말러를 두고, 그녀는 바우하우스를 세운 것으로 유명한 청년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와 사랑을 빼제버렸다. 심지어 그로피우스가 알마를 만나러 말러가 있는 집까지 찾아오는 일도 있었다. 알마의 노골적인 외도, 그리고 임박한 죽음에 대한 예감으로 말러는 엄청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크다. 말러가 프로이트에게 심리치료를 받은 것도 바로 이때다. 프로이트와의 만남은 확실히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말러는 심장병이 악화되어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일까. 말러의 갈수록 말러의 교향곡은 마치 음악으로 죽음을 치러내는 듯 인생에 대한 체념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지리 잡는다. 청중의 귀에 들리는 것은 철저히 고독하고 쓸쓸했던 말러의 목소리다. 그럼에도 그의 소리는 가슴 저리게 감동적이다. 아마도 그가 고고하게 자신만의 세계를 열어 갔기 때문이리라. 그렇게 그가 그려낸 세계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말러리언'임을 자처한다. 그러니 이제 그곳에서는 부디 외롭지 않기를.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말러가 음악감독을 맡으며 세계적 음악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빈 국립오페라극장. (중앙포토)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b>062) 227-9940</b>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b>02) 765-9940</b>
순천점	중앙시장 앞	<b>061) 752-9940</b>